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음 9월 18일) 제23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 보급 추진

### 도, 전국 최초... 5분 충전에 작업시간 2배 증가 전북 수소건설기계 생태계 조성에 초석 마련

전북도는 수소건설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전동지게차 배터리를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7억5000만원(도비 3.3억, 시군비 3.3억, 자부담 0.9억)으로 파워팩 1대 교체당 6600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매연이 없고, 전동지게차 대비 충전시간이 6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되며, 작업시간은 2배 이상 증가하여 운전비용 측면에서 10년 사용 시 10% 감소하는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은 고분자연료전지(PEMFC)와 메탄올연료전지(DMFC) 파워팩 두 종류로 구분되며, 고분자연료전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예정인 완주 봉동 인근으로, 메탄올연료전지는 전북도 일원에 신청을 받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모제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접수되며,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보급업체와 구매업체 각각 접

수가 가능하다. 파워팩 보급업체 작성 시에는 기업의 일반현황, 시설 및 인력현황, 사업능력, 사후관리 계획 및 구축체계 등을, 파워팩 구매업체 작성 시에는 2년간의 의무운영기간 및 운영실적 등의 제출을 위한 협약서와 지게차 사용계획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보급이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은 이미 상용화되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만5000대 이상이 코카콜라, 아마존, 월마트 등에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간사이공항에 5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고, 물류창고 등에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성호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전북은 수소버스, 수소트럭의 생산거점으로서 이번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보급사업을 통해 수소건설기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올해 국제회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 시민 행복 실현, 지역화로 뚫기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다.

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엘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대표, 델라 던컨 영국 슈마허대학교 교수, 아나 린백 로컬푸드 프로그램 디렉터 등 3인의 해외연사, 오창환 조직위원장(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을 비롯한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와 올해 국제회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했다.

5회째를 맞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는 사람·생태·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치는 행사로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제회의의 첫날에는 첫날 로컬푸드네트워크 대표이자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전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개막 축하 영상에 이어 '지역화의 원동력은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개막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 오늘부터 이틀간 전통문화전당서

PBI 설립자 엘런 브라운 대표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  
던컨 교수 '공동체 회복 통한 도시의 재탄생' 등 강연  
둘째날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 공동체 중요성 주제강연  
김승수 시장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향, 행복도시 조성 최선"

이어 미국 공공은행(PBI)의 설립자인 엘런 브라운 대표가 한국의 미래 세대와 재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한 로컬푸드 전문가인 아나 린백 로컬푸드 프로그램 디렉터와 델라 던컨 영국 슈마허대학교 교수가 각각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전주시 푸드플랜(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의 3개 세션별 워크숍도 예정돼있다. 워크숍에는 델라 던컨 교수와 이태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나 린백 로컬푸드 프로그램 디렉터,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손현주 전북대학교 교수, 황은주 학산종합복지관 과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이동근 경제협동체도토리회 회장, 고은하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이재민 오지세무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각 세션별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국제회의의 이틀째인 오는 17일에는 워크숍 결과 발표와 함께 공동체 분야 베스트셀러인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인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이 '공동체의 회복이 행복의 열쇠'를 주제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주제강연에 나선다. 또, 폐막식에서는 전주지역 유치원생들이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전주의 미래'를 목소리와 몸으로 표현한 페마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엘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대표는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빠른 경제성

장은 문화나 삶의 방식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는 속도도 매우 느리다 하여 '느림의 도시'로 불리는 전주에서 잠시 멈춰서 꽃 향기를 맡고,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기술적 진보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델라 던컨 슈마허대학교 교수도 "경제의 목표를 맹목적인 경제성장에서 전 지구인의 행복과 안락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절실한 경제시스템의 전환방법"이라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행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나 린백 로컬푸드 프로그램 디렉터는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전주의 스토리가 전 세계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경제 구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해 왔다"면서 "5회째 맞는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로 5년째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함께 열고 있다. /김윤성 기자

## "새만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도"

###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국회 국토위 국감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 김현숙 청장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새만금개발사업이 민간 주도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해경제권 중심도시로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 5월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통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사와 협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새만금의 물류·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기반시설 구축은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에서 마련한 사업추진방안과 지역 상생방안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사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매일 INDEX

3면 -군산강소특구 지정 촉구 건의

4면 -개인비행체 개발 포럼 개최

5면 - '복습으로 실전수능 대비해야'

축! 전주매일 창간

축제 HOT 이슈!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지상최고의 순창떡볶이 오픈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

순창의 밤은 낮보다 Shine 하다!  
유명DJ와 함께하는 EDM쇼!  
총횡무진 '좀비야 놀자!'  
강천산 단월 야행!

제14회 **순창장류축제**  
2019. 10. 18(금) ~ 20(일) 3일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10.18(금) 전국 탐텐 가요쇼  
10.19(토) 휘성콘서트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송가인 (미스트롯), 김소유 (미스트롯), 강진, 계은숙, 휘성, 윤형주 (세시봉), 김세환 (세시봉), 김구봉구

| 주최·주관 |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